



갑진년 새해 '情' 모락모락 2024 정릉의 해 갑진년 새해부터 경산에 온정의 손길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따뜻한 손길이다. 주는이와 받는이 모두 행복하다. 그래서 세상은 참 따뜻하다(사진=경산시 제공)

이철우 경북지사, 갤럽 전국 시도지사 평가 1위

한국갤럽 전국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 발표... 긍정 62% 가장 높은 평가



은 평가를 받았다. 상반기 보다 1%포인트 올랐다. 이 지사는 60대와 70대 이상 보수층으로부터 긍정적 평가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율은 18%였다.

이철우(사진) 경북지사의 정치 행정이 전국 최고다. 이 지사는 한국갤럽이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긍정 62%로 가장 높

다음으로 △김영록 전남지사(60%) △김동연 경기지사(58%) △홍준표 대구시장(56%) 및 박형준 부산시장(56%) △김두겸 울산시장(53%) △김태흠 충남

지사(52%) △오세훈 서울시장(52%) △오영훈 제주지사(52%) △김관영 전북지사(51%) △유정복 인천시장(50%) △박완수 경남지사(49%) △이장우 대전시장(47%) △강기정 광주시장(45%) △김진태 강원지사(42%) △김영환 충북지사(33%) 순이다. 이 지사는 지난 1년간 전국시도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들과 함께하며 극복에 전념했다. 'K-U 시티'를 중심으로 한 교육혁신, 농업인의 소득

을 3배로 실현한 농업 대전환도 하몌했다. 무엇보다 14조1000억원에 이르는 사상최대의 투자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이 도민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2만1030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3사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17개 시도별로 최대 5500명, 최소 155명이다. 표본오차는 17개 시도별 ±1.3~7.9%포인트(95% 신뢰수준)다. 평균 응답률은 13.9%였다. 김성용 기자

윤 대통령, '김건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구 아파트 분양권 전매, 무너져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나들이는 호명관광여행사 여행안내 054-791-1717

단재장 일정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오후 산격청사 사회실에서 열리는 '2024년 업무보고'에 참석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8일 오전 덕계이호텔 경주에서 열리는 2024 경북여성 신년교례회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충돌... 여, '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압박 야, 尹 국민 버리고 가족 선택 비판

여야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의 재표결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법에 대한 재요구권을 재가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특혜제공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국힘국회본회의의 재표결 압박 국민회의는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바로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공격했다.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공천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태표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이는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압박할 때까지 계속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일 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 심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대결을 선택했다"며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하지 하라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펼치듯 국무위원을 동원해 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위한 방탄 국무회의"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 스스로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 70%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데 국민 뜻이 옳다면 윤 대통령이 국민 뜻을 거부하는 건 모순"이라며 "불공정과 몰상식,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상징이다.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국민과 싸우는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8개월 만에 400건 아래로 떨어지는 등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 대구의 분양권 거래량이 333건으로 전월(442건) 대비 24.6%(109건) 줄어드는 등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3월(382건) 이후 월 400~500건대를 유지하던 거래량이 8개월 만에 300건대로 다시 떨어졌다. 다만 전년 동월(181건)보다는 83.9%(152건) 늘었다. 구·군별로 보면 서구가 77건으로 거래가 가장 활발했다. 중구(61건), 동구(57건), 달서구(44건), 수성구(41건), 달성군(25건), 북구(21건), 남구(7건) 순이다. 한편 대구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특별점검에서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 앞서 대구시는 구·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89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무자격 중개행위 2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전달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지원 대책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조영은 기자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사업 예타 통과<관련기사 8면>

2024 甲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의 행복과 경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산시의회가 되겠습니다!

| | | | | | | | |
|-------------|-------------|------------|------------|------------|------------|------------|------------|
| 의장 박순득 | 부의장 안문길 | 위원장 이동욱 | 위원장 전봉근 | 위원장 김상호 | 위원장 손말남 | 위원장 김화선 | 위원장 권종석 |
| 부위원장 김인수 | 부위원장 김계태 | 의정 강수명 | 의정 박미옥 | 의정 양재영 | 의정 윤기현 | 의정 | 의정 |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1월 8일 월요일 2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시 생활임금 첫 도입 환영

올해부터 대구지역에 생활임금이 처음 도입 되자 야당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5일 논평에서 "시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며 "대구시의 생활

임금제 시행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첫 도입된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과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이다. 적용 기간은 1년이며, 시급으로 따지면 1만 1378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37만8002원(1주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대구시는 1월 중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경북도의의회 2023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92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총점 68.5...타 공공기관 보다 낮아 대구시의회 3등급 강원 등 5등급

경북도의의회가 2023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의회 75개)를 대상으로 한 '2023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확인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경기도의의회는 5등급을 받았다.

기초 시의회 중에서는 태백·성남·수원·이천·안동·포항시의회가 5등급이었다.

전체 평가 대상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평균은 68.5점으로 나타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평가는 지역 주민 1만9964명, 직무 관련 공직자 7085명, 단체 및 전문가 7161명 등 총 3만 4000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80점), 각급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 평가인 '청렴노력도(20점)'의 합산에서 부패사건 발생 현황(10점)을 감점한 결과로 이뤄졌다.

■ 경북도의의회 종합평가 1등급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경북도의의회가 종합 청렴도 1등급을 차지했다.

2등급은 경남도·울산시·전남도·충남도의의회, 3등급은 광주시·대구시·대전시·부산시·세종시·인천시·전북도·제주도의의회가 받았다.

서울시의의회와 충북도의의회는 4등급, 강원 특별자치도의의회와 경기도의의회는 5등급에

그쳤다.

75개 기초 시의회 중에는 강원 동해시, 경기 동두천시, 전남 광양시의회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삼척·춘천·과천시의회 등 21개 시의회가, 3등급은 강릉·속초·군포시의의회 등 27개 시의회가 선정됐다.

원주·고양·광명시의의회 등 18개 시의회는 4등급을 받았고, 태백·성남·수원·이천·안동·포항 시의회는 5등급에 머물렀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가 모두 1·2등급인 지방의회는 충남·전남·경북도의의회와 구리·동두천·동해·광양시의의회 등 19개였다.

반대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가 모두 4·5등급인 지방의회는 서울시·경기도·강원도의의회와 수원·성남·오산·원주·태백·포항·안동 시의회 등 10개였다.

■ 지방의회 종합평가 68.5점...

평가대상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평균 점수는 68.5점으로 나타났다.

'청렴체감도' 점수는 66.5점에 그쳤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 청렴체감도 평균은 80.0점이었다.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이 15.51%에 달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가에서 내부 공직자 부패 경험률은 1.99%였다.

부패방지 노력 평가 지표인 '청렴노력도' 평균은 77.2점으로 청렴체감도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역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인 82.2점에 비해 낮았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이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그쳤고,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항이 있는 곳도 41개(44.6%)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청렴수준이 유달리 낮다고 보고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정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 점검이 1분기 내 실시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제도 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 정책이 연중 시행된다.

정승운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용 기자



축제의 계절 겨울 마음껏 즐겨보자

청송 2024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남녀 일반 리드·스피드 종목 경쟁 군위 삼국유사 눈썰매 축제 분주

축제의 계절 겨울 마음껏 즐겨보자.

지역마다 유명한 특산품이나 관광지가 있듯이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국내 겨울 여행지와 축제들이 있다. 청송군은 2024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을 열고, 군위군은 삼국유사 눈썰매 축제에 분주하다.

■ 2024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대한산악연맹과 국제산악연맹(UIAA)이 주최하는 '2024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이 12-14일 청송군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회는 남녀 일반부 리드, 스피드 종목으로 진행된다.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 남녀 리드 예선과 스피드 예선·결선이 치러진다. 14일에는 남녀 리드 준결승 및 결승, 시상식이 열린다.

아이스클라이밍 스피드 남자부 세계랭킹 1위 모흐센 베헤슈티 라드(이란)과 여자부 세계랭킹 1위 비비앙 라바릴(스위스), 2위 시나 괴츠(독일) 등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들도 25명이 나선다.

스피드 남자부 세계랭킹 2위 양명욱과 리드 여자부 세계랭킹 3위 신은선 등이 우승을 노린다.

대회 일주일 전인 6일에는 '2024 청송 전국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도 가졌다.

이 대회를 통해 2024-2025시즌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를 뽑는다.

■ 삼국유사 눈썰매 축제

삼국유사테마파크는 겨울방학을 맞아 6,7일 이틀간 눈썰매 이용자들에게 눈썰매 보트를

무료대 했다.

군위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방학을 맞아 삼국유사테마파크를 찾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방학 첫째주인 6,7일 테마파크 내 눈썰매장을 이용할 경우 썰매 보트를 무상으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삼국유사테마파크 내 식·음료점들도 겨울방학 맞이 할인에 참여한다.

풍류정 식당은 3만원 이상(합계금액) 이용자에게 아메리카노 커피를, 동물원 카페에서는 모든 음료에 대해 10% 할인 했다.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지난달 23일 눈썰매장을 개장했다. 썰매장 부근에 북유럽 눈마을 컨셉의 조형물을 조성, 이용자들에게 포토부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국유사테마파크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 명소 콘텐츠를 발굴·육성하는 '로컬100'에 선정된 바 있다.

박재성·윤병문 기자

'군민이 빛나는' 달성군 성과 빛났다

2023 기관수상 역대 최다 63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적극적 발굴 추진한 결과

달성군이 2023 각종 분야별 평가에서 역대 최다 수상실적을 달성했다.

민선 8기 '군민이 빛나는 달성'이라는 비전 아래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한 결과다.

최재훈 군수는 "역대 최다 수상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군민이 만족하는 공감 행정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더 큰 발전과 도약의 역동적인 모습을 27만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덧붙였다.

달성군에 따르면 2021년 57건, 2022년 61건, 2023년 63건의 기관 수상을 받으며 해마다 수상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부처 34건, 대구시 12건, 외부 기관에서 17건을 수상했다. 교부세를 포함해 확보한 인센티브 금액은 9억3960만 원으로 지난해 3억2529만 원 대비 약 3배 가까이 증가해 역대 최고의 인센티브를 기록했다.

주요 수상내역을 보면 △삼각사원 자체감사활동 최우수 △북지부 지역복지사업 보육정책 부문 최우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평가 최우수 △문체부 대한민국 국제관광

광박람회 최우수 △행안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 △국토부 건축행정평가에서 우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올해는 전국 군단위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최우수,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군의 행정력을 인정받았다.

여성가족부 주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우수,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공헌 4년 연속 유공, 겨울 취약계층 지원 표창,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우수, 디지털 헬스케어 성과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며 교육복지분야에서도 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대한민국 창조경영 문화관광도시 부문 대상과 대한민국 캠핑대전, 제38회 서울국제관광전, 2023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문화관광분야에서만 8건을 수상했다.

행안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부 대한민국 국토대전 공공디자인 부문 장관상, 건축행정평가 우수상, 대구시 산불방지 평가 최우수,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실적평가에서 1위에 선정되는 등 군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명품도시로서의 위상을 증명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CES 2024'에 공동관 운영...

CES혁신상 대구기업 8개사 수상 역대 최다 기록 경신 '기업' 토해

대구시는 지역 혁신기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8일부터 지역기업 16개사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이하 CES 2024)에 참가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며, 스페인(MWC), 독일(IFA)과 함께 세계 3대 IT 박람회 중 하나로 1967년부터 열렸다.

행사 초기에는 TV, PC 등 소비자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전시하다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2010년대 모바일 혁명을 기점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등 여러 산업 분야로 전시 범위를 확대하면서 가장 '빨리' 그해의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글로벌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선정한 CES 2024의 주제는 'All Together, All On'이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인공지능)를 비롯한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전 지구적인 과제를 해결하자는 의

미를 담고 있다. 주최 측 통계에 따르면 150개국,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한국의 경우 미국(1148개), 중국(1104개)에 이어 700개 이상의 대기업 및 벤처창업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CES 2024 대구기업 공동관에는 에너지캡, 보국전자, 유엔디 등 16개 혁신기술기업이 인공지능, 모바일, 로봇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해 바이어와 투자자들을 만난다. 보국전자와 엘유엘코리아는 각각 AI 기능이 탑재된 Deep Sleep 체침관과 전기자전거 체침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CES 2024에서는 지난 5개에 그쳤던 'CES 혁신상'을 대구기업 8개사가 수상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가 전 세계 혁신제품 중 기술성, 디자인,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수여하는 상으로 국제적 기술 공인력 확보가 필요한 해외 진출 준비 기업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상이다.

시는 제6기 '대구시 4차산업청년체담단'을 운영해 지역 청년 30명에게 CES 2024 참가와 실리 콘밸리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조여은 기자

1년간 윤 대통령 지지율...최고 44.5% 최저 35.9%

지난 1년 2개월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살펴본 결과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는 2022년 12월 넷째 주, 44.5%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순간은 2023년 4월 넷째 주로 35.9%를 기록했다.

뉴시스는 국민리서치그룹·에이서리서치에 의뢰해 2022년 12월 둘째 주부터 올해 1월 첫째 주까지 격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사

했다.

6월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은 2022년 12월 4주차에 약 45%까지 치솟았다. 2주 전 조사(12월 2주차)와 39.5%보다 5%포인트 상승하면서다.

당시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평가한 이유로 '결단 및 추진력(39.3%)', '공정과 정의(30.6%)', '외교 및 안보(9.0%)', '경제와

민생(5.8%)', '부동산정책(5.7%)', '국민과의 소통(5.3%)'를 꼽았다.

지지율 최저점은 작년 4월 둘째 주로 35.9%까지 떨어졌다. 2주 전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여론조사 수행 기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순간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 누적을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는데 민생 관련 불안감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구한의대 변창훈 총장, 한국주거환경학회 회장 취임

변창훈(사진) 대구한의대 총장이 제11대 한국주거환경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변 총장의 임기는 이달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다. 한국주거환경학회는 2003년 창립 이래 도시

와 건축, 환경과 부동산에 관한 거주 문제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와 함께 연구기관, 지자체, 민간 기업과 다수의 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국제 연구 교류와 학술지 발간 등을 수행해 왔다.

변 총장은 “정부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 후 도시, 환경, 부동산 문제에 관한 정책 제안은 물론 청년, 고령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거주질 향상, 지역별 및 인구소멸지역의 주거문제, 동아시아의 주거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안 제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경은 기자



상대초 교육부장관상 받았다

생명존중 우수동아리 공모전 교육부장관상 수상 영예안아 상대초등, 사랑이동아리 활동

포항에 있는 상대초등학교가 교육부 주관 '2023년 학생 생명 존중 우수동아리 공모전'에서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경북교육청은 공모전은 학교 내 생명 존중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장려,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에서 100교를 선정, 우수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공모전에서 초·중·고 급별 우수 실적이 있는 3교를 선정,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만 원을 시상했다. 심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정량평가(동아리 활동 실적과 횟수, 동아리 활동 출석률 80% 이상)와 정성평가(목표 적합성, 동아리 활동 내용, 지역특성 반영)로 진행됐다. 대상은 받은 상대초등학교(포항)의 '사랑'이라는 생명 존중 동아리를 통해 '혼자가 아닌 우

리'라는 내용의 동아리 활동을 42회 운영했다. 주요 활동으로 △피켓 만들기 △보물찾기 △쪽지 만들기 △고민 상담 답장 써오기 △캘리그래피 활동 내용 생각해 오기 △생명 사랑 공모전 작품 만들기 △마음 튼튼 체조 활동하기 등을 했다. 김중현 학생생활과장은 “경북교육청은 계속해서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현장을 지원하겠다”라며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또래 친구들과 소통함으로써 서로 치유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경북교육청, 학폭 전담 조사관 첫 걸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안내

경북교육청은 5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과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했다. 연수는 교육부의 학교 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2023년 4월12일)와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SPO 역할 강화 방안 발표(2023년 12월7일)에 따른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등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학교 폭력 사

안 처리 제도 개선과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했다.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 폭력 사안 조사, 피해 학생 심리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서비스 등 지원 체계의 일원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 사안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제도는 교사의 학교 폭력 업무를 경감하고, 교사는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학생 상담,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김중현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제로센터의 효율적인 원스톱 통합 지원과 전담 조사관의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교사가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연수 대구교육청은 5.6일 이틀간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관내 학교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연수는 대구교육청과 경북대학교가 함께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한 직무연수로 교육청-지역대학 간 협력 사업이다. 연수 과정은 스마트 미디어 변화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 디지털 유해환경과 청소년 위험행동 실태 등 관련 분야 전문가의 특강과 △초·중·고 학교급별 수업 사례 및 수업방법 공유 △학습지도 활동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대구교육청과 경북대는 2021년 6월, 대구경북 미디어교육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 학생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황태용 기자

경북 지난해 112신고 100만건 넘어

2022년 신고건수 87만5788건 작년 100만6199건 14.9%증가 하루 평균 2757건 신고 접수



경북도내 지난해 112신고 건수가 2022년 대비 14.9% 증가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올해 기동순찰-형사 기동대, 광역정보계 운영 등 조직재편과 함께 매월 112신고현황 분석을 토대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전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신고건수 87만 5788건 대비 지난해 신고 건수는 100만6199건으로 14.9%(13만411건)가 증가해 하루 평균 2757건을 접수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해제되면서 장기간 억제된 다양한 욕구들이 표출되면서 112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112신고 접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관련 신고 중 교제 폭력 4.9%(2193→2301), 절도 2.0%(1만129→1만 335), 가정폭력 0.5%(9185→9230), 아동학대가 0.4%(804→807)로 증가했다. 이슈화된 마약류 신고가 242%(129→441) 대 폭 증가해 도내에서도 마약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을 볼 수 있다. 교통분야 신고 교통위반이 24.8%(5601→6988),

교통불편이 19.3%(1만7061→2만362), 음주운전이 12.8%(1만5129→1만7063), 교통사고 신고가 5.7%(8만1222→8만5886)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질서유지분야 신고 중 무전취식이 15.5%(3088→3568), 주차자 9.6%(2만664→2만 2657), 보호조치 신고가 7.2%(1만623→1만1391) 증가했다. 기타 신고로 재해재난 신고가 467%(229건→1299)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한 북부지역 산사태 발생 등 신고가 집중돼 증가한 것이다. 비출동 신고인 상담문의는 6.8%(9만7022→10만3578)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 최다 월은 5월(10만2926건), 최다 요일은 토요일(15만4715건), 최다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11만6419건)로 나타났다. 활동량이 많은 계절, 요일, 시간대에 112신고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성용 기자

대구·경북 12월 기온 변동폭 역대 최대

강수량 104.4mm 최고치 경신 일강수량 극값 1위 경신 지점 울진 80.2mm, 영덕 56.6mm 기록

대구·경북의 12월 한달간 기온 변동폭이 5.3도 나타나며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일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기온 차 역시 19.3도로 역대 가장 높았다. 평균기온은 2.2도로 평년보다 1.1도 높게 나타났다. 12월 전반 대구와 경북은 인도양 벵골만에서의 강한 대류 활동에 따뜻한 남풍이 더해져 기온이 크게 올랐다. 8~11일 4일간 지역 곳곳에서 12월 일평균기온 및 일최고기온 극값을 기록했다. 주요 지점 일평균기온은 최고 극값 1위를 경신한 지점은(12월 9일) 영천 12.4도, 의성 11.9도, 안동 11.3도, 문경 10.9도, 봉화 10.8도 등이다. 중·하순에는 시베리아지역에서 상층 기압능

이 동서로 폭넓게 빠른 속도로 발달한 데 이어 북극 주변의 찬 기압기압으로 유입돼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강수량도 평년 월강수량보다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대구·경북의 강수량은 104.4mm로 평년 118.~24.1mm보다 많았으며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1위를 기록했다. 중순인 11일과 15일 대구와 경북 일강수량은 각각 37.7mm, 39.8mm로 두 날 모두 하루 만에 대구·경북의 평년 12월 월강수량 21.9mm보다 많은 비가 내리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중·남부지방에서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저기압이 대한민국으로 접근하며 남서풍이 유입, 일본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발달해 많은 비가 내렸다. 대구·경북 12월 일강수량 극값 1위 경신 지점은 울진 80.2mm, 영덕 56.6mm 등이다. 대구·경북 평균값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1973년 이래, 11개 지점(울진, 안동, 포항, 대구, 봉화,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관측값을 사용한다. 정창명 기자

Advertisement for Korea Press Foundation. It features a glass and a steering wheel. Text: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한한 슬로건입니다." (No! If you've emptied your glass, please leave the driver's seat empty. This slogan is limited by all citizens.)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문희구 본부장 취임



문희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이 지난 2일 취임, 지역본부 장으로서 공식업무를 시작했다. 문 선임 본부장은 대구 출신으로

1995년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한 후 수도권 지역본부, 도시사업처, 도시재생사업처, 신도시계획처 등 공사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토지개발사업의 후보지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등 도시계획 분야에서 많은 실무경력을 쌓아왔다. 조여은 기자

| | |
|--------------|--------------|
| 코스피 (-8.94p) | 코스닥 (+1.39p) |
| 2,578.08 | 878.33 |
| 엔화 (+2.58p) | 유가 (-0.14p) |
| 909.44 | 1,572.19 |
| 환율 (+4.00%) | 금(금) (-0.20) |
| 1,316.00 | 2,049.80 |

www.dgy.co.kr

안동소주 역사 스카치위스키보다 200년 앞선 명주

경북도 안동소주 품질인증 기준 마련 안동소주, 알코올 30% 이상 돼야... 이철우, 세계화 시동 고급·브랜드화



경북도가 안동소주의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안동소주 고급화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업체, 대학,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안동소주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최종 합의 도출한 도지사 품질인증 기준은 안동시에서 생산된 곡류 100%를 사용한다.

안동시 소재 제조장에서 생산된 증류식 소주로 △원료 쌀 품질기준(수분 16% 이하, 찌라기 7% 이하, 이물 0.3% 이하 등) △증류원

액, 정제수 외 첨가물 사용금지 △OEM금지(타 양조장 반입 증류·양조원액 사용금지) △알코올 도수 30% 이상 △6개월 이상 숙성(오크통 숙성 포함, 오크집 사용 금지)을 기준으

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통주 시장 규모는 1629억원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흡술, 혼술 열풍을 타고 2021년 941억원보다 73% 성장했다.

경북의 전통주 시장 규모도 2022년 194억원으로, 2021년 143억원에 비해 35% 커졌다.

도는 지난해 초 '안동소주 세계화'를 선언한 후 스코틀랜드의 수출상품인 스카치위스키와 같이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위해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안동소주 국내 매출액은 167억원으로 2022년 134억보다 25% 성장했다.

수출액은 2022년 6억원에서 2023년 7억원으로 증가했다.

안동소주는 750년 음식 유산으로 스카치위

스키보다 그 역사가 200년 앞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주다.

세계시장에서 요구하는 K-위스키로 거듭나기 위한 경북도와 기업의 움직임도 속도를 낸다. 올해는 안동소주의 국내외 주류시장 공략을 위한 기초작업인 B(브랜드 정체성)와 공동주병을 도입했다.

고유의 역사성 부각과 명주로서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업체 간 상호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일관된 경험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안동소주를 주로 전통적 도자기 병에 담아 판매했으나 같은 브랜드는 세계화 전략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업체 등 관계자는 분석했다.

때문에 도는 트렌디한 디자인의 주병과 안동소주의 차별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B를 도입, 참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마다 서로 다른 제품 특징을 라벨로 구분 짓도록 뜻을 모았다.

안동소주 제품과 잔 등을 묶어 파는 세트상품 개발 등 시장 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리집, 외국어 홍보물 제작 등 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 국제 학술대회 등을 개최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안동소주의 역사는 스카치위스키보다 200년이나 앞섰고, 중국의 백주 등도 도 애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명주"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동소주의 고급·브랜드화를 통해 전통주 수출 확대에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용 기자

DGB대구은행, 대고객 서비스 상품 품질 높인다

6.0%쿠폰적금 판매 iM뱅크 '경품' 행사 가입시 최신 디지털 기기추첨 증정 행운

DGB대구은행은 새해를 맞아 고급리 예적금 상품인 iM뱅크 '더쿠폰 예적금 행사'를 한다.

황병우 은행장은 "iM뱅크 출시 이래 편리한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의 전용 상품을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행사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10대들을 겨냥한 iM뱅크 Mini 버전 출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환승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업권들과의 iM뱅크 제휴 협업이 예정, 앞으로도 대고객 서비스와 상품 품질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DGB대구은행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신 디지털 기기를 추첨 증정하는 '2024 무작위 드림추첨 행사'다. 오는 2월말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2024년의 첫 더쿠폰예적금용 쿠폰은 iM뱅크 앱을 통해 '혜택 알림용 앱 푸시'를 동의할 경우 발행된다.

신규고객은 7영업일 이내, 기존 고객은 즉시 쿠폰이 발행되며 1인당 연 6.0% 적금 1좌(최대 월 20만원·세전 1년제), 연 4.0% 예금 2좌(좌당 최대 5천만원·세전 1년제)가 가입 가능하다.

2022년 10월 4일 출시된 더쿠폰예적금은 iM뱅크를 통해 쿠폰을 다운받아 가입하는 고급리 수신상품으로 출시 이래 판매 마케팅 시 마다 조기 완판이 성과를 냈다.

iM뱅크는 2019년 기존 DGB개인뱅킹, DGB알리미, DGB 통합인증을 하나로 통합, One-앱 방식으로 오픈한 이후 더쿠폰예적금 상품을 비롯해 관광지 인증기반 핫플적금, 7개월 만기 세분

적금 등의 참신한 금융상품을 출시해왔다.

토스, 카카오뱅크, 핀다와 같은 금융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제휴사업과 안면인식기술 비

면 실명확인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실시로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권 디지털 영업을 현재성 확립에 진행 중이다.

새해를 맞아 첫 판매되는 더쿠폰 예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행사도 한다.

편의점 쿠폰 2020장을 비롯, 총 2024명의 고객에게 경품을 추첨 증정한다. 조여은 기자

믿고 먹는 맛 좋은 재래종 고추 분양합니다!

영양고추연구소, 지역특화 재래종 고추 확산... 4개 품종 종자 분양

경북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는 자체 복원한 재래종 고추 4품종의 종자를 고추 재배 농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1월 8~12일까지 선착순 공개 분양 신청받는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재래종 고추는 시판 품종에 비해 병에 약하고 재배 적지가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맛과 향, 매운맛이 우수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역특화 재래종 고추 재배 및 병해충 방제기술, 가공품 개발 연구를 통한 재래종 고추 부가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분양하는 재래종 품종은 매운맛과 단맛이 잘 조화된 '수비초(영고4호)', 순한맛으로 과피가 두껍고 색깔이 좋은 '칠성초(영고5호)', 매운맛이 강하고 수확시기가 빠른 '유월초(영고10호)', 토종(영고11호) 등 총 4가지 품종이다.

영양고추연구소에서 복원한 재래종 고추는

지역 기후풍토와 품질에 따라 선별돼 토착 유전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품종으로 지역특화 재래종 고추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올해도 무상으로 농가에 분양하게 됐다.

최근 맛이나 색깔 등 품질특성이 우수한 재래종 고추에 대해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영양고추연구소는 지난 5년간 재래종 고추 종자를 전곡 5천 163농가(총 88.1ha)에 분양했다.

분양 신청은 선착순으로 인터넷(1000명)과 방문(200명)을 통해 진행, 판매금지 등 분양계약 준수를 전제로 1인당 총 200립(수비초·칠성초·유월초·토종 각 50립 씩)의 종자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경북농업기술원 홈페이지(gba.go.kr) → 왼쪽 상단 열린광장 → 공고/고시에 재래종 고추 종자분양 신청링크를 통해 하면 된다.

종자 신청방법은 농업기술원 누리집 자유게시판 게시했다.

신청 시 '네이버 ID'가 필요하고, 1개의 ID당 1회 신청 가능하며 종자는 오는 15일부터 신청한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한다. 권운동 기자

수익률 12% ↑ 국민연금 작년 100조원 넘게 벌어들였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처음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 설립 후 역대 최고인

12%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수익금은 100조원을 처음 넘겨 전체 적립 기금 규모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수익률은 3월 최종집계를 마친 후 상반기 중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운용이 지난해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지난해 국내외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
경산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주 전국 최고 스포츠명품 도시 위상 떨친다

주낙영 시장의 새해 희망 ④ 스포츠 산업 활성화

스포츠 굴뚝없는 탄소제로산업
지난해 29차례 국제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5만6천여명 찾아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가 전국 최고의 스포츠명품 도시로 급부상 하고 있다.

전국 최초 사계절 전천후 축구에어돔축구장을 비롯해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축구공원, 경주베이스볼파크, 파크골프장 등 전문체육시설 3곳, 생활체육시설 51곳 등 풍부한 체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겨울철 동계 전지훈련을 시작으로 지난해 29차례 국제, 전국단위 각종 대회 및 행사가 열려 선수 등 5만5300여명이 경주를 찾아 굴뚝 없는 스포츠 산업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스포츠는 굴뚝 없는 탄소제로 산업이다. 내년 상반기 개장 목표로 중장년층을 위한 파크골프장 54홀과 지역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등을 조기에 완공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체육복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풍부한 체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시설 노후 및 체육공인규격 미달의 시민운동장을 '황성공원 그린드림 사업'을 통해 이전전립을 가속, 전국체전 유치 등 스포츠 도시 위상 제고에도 전력을 다 하겠다"고 표명했다.

동계훈련 등 전국 유명세

경주가 사업비 107억을 들여 전국 최초로 기동 없는 스마트 에어돔축구장을 올해 4월에 개장했다.

내부에는 K리그 인증을 받은 정규규격의 인조 잔디축구장 1면, 선수들의 스피드 향상과 근력강화 훈련에 보탬이 되는 모래훈련장 1면과 전술회의실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실시간 영상촬영은 물론 경기 후 활동역량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경기영상 분석기술 플랫폼도 갖추고 있다.

지진, 태풍에 강하며,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 온습도 및 기온, 강추위,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과 전혀 무관한 사시사철 전천후 체육시설이다.

지난해 K3 한수원FC 등 프로그단을 비롯해 화랑대기 축구대회, 시민 및 동호회,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등 총 1만7000여명이 이용

했다.

타 지자체 60여 차례의 벤치마킹 등 전국 유명세를 기록하고 있다.

인근에는 경주엑스포공원, 보문단지, 경주월드, 경주동궁원(버드파크) 등 풍부한 문화, 관광, 음식, 숙박 인프라가 완벽해 스포츠를 통한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스포츠 도시 위상업

경주는 2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여름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다.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축구대회를 비롯해 동아일보 국제마라톤대회, 태권도, 야구 등 지난해 국제, 전국단위 대회 29차례에 55,350여명의 선수가 경주에서 열전을 펼쳤다.

4월에 1만976명이 참가한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주벚꽃마라톤 대회와 10월 9175명의 전문선수들이 참가한 동아일보 국제마라톤 대회를 통해 보문단지 등 아름다운 경주 벚꽃과 가을 단풍도시 경주가 국내외에 많은 홍보가 되기도 했다.

시는 대회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면서 소방,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구장 및 코스관리, 안전 및 구급차량 배치, 교통대책 등 빈틈없는 준비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훌륭하게 소화했다.

스포츠 대회를 통해 특히 식당, 숙박, 광고업계의 경기활성화와 스포츠 도시 경주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

99홀 파크골프장 조성운영

시는 장년층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영 장려 등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확대 등 체육복지 증진을 꾀하고 있다.

과거 어르신들이 즐기던 게이트볼을 연상케 하는 파크골프는 비용이 저렴하고 운동 체감 효과가 뛰어나 젊은 층을 포함한 동호인이 늘고 있다.

현재 1500여명이 경주파크골프협회에 등록돼 있다.

기 개장한 형산강 둔치를 활용한 경주파크골프장 18홀과 북천 둔치를 활용한 알천파크골프장 18홀에 이어 78억을 들여 추가로 시내권 18홀, 서경주(건천) 9홀, 북경주(안강) 9홀, 남경주(외동) 9홀을 조성했다.

한수원 사업비로 동경주(양남) 18홀 등 63홀을 더하면 5개 권역에 총 99홀(기 운영 45홀, 조성 중 54홀)로 추진 중인 54홀 대부분이 올 상반기 개장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축구공원과 더불어 드넓은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보로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관광 도시 위상 제고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크골프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생활체육으로 각광받는 스포츠이자 노인복지시설로 노인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시는 앞으로 파크골프장을 비롯,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

전국구 동계 훈련지로 각광

천년고도 경주가 전국 최고 동계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축구는 알천구장과 축구공원에서 50팀 1000여명이, 야구는 경주베이스볼파크에서 12팀 400여명이 참가했다.

태권도는 불국체육센터에서 35팀 300여명 등 37팀 1700여명이 참가했다.

2022년 66팀 1545명보다 10%(인원수 기준)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에는 스마트에어돔 축구장 개장으로 5000여명 이상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는 풍부한 숙박시설, 다양한 식당, 교통 편의성, 겨울철 온화한 기후와 지리적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전국 최고의 완벽한 스포츠 인프라가 조성돼 전지훈련지로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문을 연 불국체육센터는 넓은 공간과 훈련하기 좋은 최적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태권도 훈련장으로 손꼽힌다.

온습도 등 기후와 무관하고 경기영상 분석 기술 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의 스마트에어돔 축구장에 많은 선수단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겨울 비수기 얼어붙은 지역경기를 녹이는 데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

알천축구장과 축구공원은 천연잔디 8곳과 인조잔디 3곳을 보유하고 있다.

경주베이스볼파크는 시설의 우수함과 아름다운 주변경관 등의 사유로 방문하는 팀들마다 매년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선수단 유치를 위해 모든 동계훈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경기방별 천막 설치, 의료지원 등 선수단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휴식기간에 선수들이 둘러볼 수 있는 세계문화유산이 곳곳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궁원, 루지월드(인장로 30% 할인), 황리단길 등을 둘러보며 여가활동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강점도 있다.

시는 해마다 많은 선수단이 동계 훈련지로 경주를 찾고 있어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참가 선수들이 불편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스포츠 인프라 확충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상북도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

포항 올진
청도 칠곡



해병대에서 후임 부서관
'집단 괴롭힘' 드러나

해병대에서 부서관들의 후임 폭
행·성추행 등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민간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포항
에 위치한 해병대 1사단의 A하
사는 지난 2022년 말부터 선임
부서관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 정창명 기자



울진보건의료, 당뇨환자
무료 망막증 검사

울진군 보건의료는 이달부터 당뇨질환
환자의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해 당
뇨망막증, 미세단백뇨검사를 무료
로 시행한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받아 군 관내 당뇨환자 170명에 대해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검진은 관
내제일안과와 협약으로 진행된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실명의 원인
이 되며, 당뇨병성 신증은 신장 기
능손상을 가져오므로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조기진단 및 치료로 합
병증을 예방해야 한다. 이경수 기자



태양간기 남수용 대표, 온정나눔

태양간기 남수용 대표는 소외계
층을 위한 부식 후원물품 100박스
를 복삼읍에 전달했다.

복삼읍에 거주하고 있는 남수용
대표는 올해 내 옆의 이웃들을 돕
자는 취지로 이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받은 후원물품은 관내
소외 이웃 어린이 100명에게 전달
될 예정이다.

남수용 대표는 "소외된 이웃들
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
다"고 전했다.

김하수 청도군수 행정 군민 만족도 높았다

청도군 민원서비스 10명 중
7명이 '더 좋아졌다' 평가

김하수 청도군수의 행정이 빛났다.
지난해 7월 시행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0명
중 7명(69.8%)이 '민원서비스가 지난 1년 대비 더
욱 좋아졌다'고 답한 것이다.

김 군수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근거한 민원처
리 절차를 준수하고 민원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민
원환경을 만들어 민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부단한 노력으로 군민이 감동할 수 있는 최상
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 군수는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에 행정
력을 총동원했다.

민원인에게 '일어나서 인사하기 운동', '민원 응
대 표준 매뉴얼 배포'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전문
CS 교육과정을 강화해 왔다.

■ 감성 로봇 새롭아 도입

지난해 민원실 혁신 성과를 보면 △행복을 주는
민원 안내 감성 로봇'새롭아' 도입으로 행정의 효
율화를 선도하고 있다.

군은 '서비스로봇 활용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25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지난 10월 도입, 주요 민원 질의·답변 2000여 개
를 입력해 완성한 '음성인식민원안내' '정사안내',
청도군 주요 관광지 안내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4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를 구
사할 수 있도록 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배려
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청도
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이러한 민원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청도읍사무소(산동지역 관할), 화
양읍사무소(산서지역 관할)에 전화한 통으로 생



김하수 청도군수(중앙)는 새해를 맞아 민원실 직원들과 함께 와이인 색상의 통일된 민원응대복을 입고 최상의 친절민원 실천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청도군 제공)

활 속 소소한 민원을 신청하면, 전담처리가비 출
동해 해결해 주는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을 신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처리반을 설치·운영한 기간이 불과 7개월 남짓였
으나 서비스를 이용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

■ 생활민원 으뜸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청도군에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돼 주고 있는 생활민원바로처리반은 수
요자 맞춤형 민원서비스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보여진다.

군은 상반기(4~5월), 하반기(11월)에 각각 2023
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7개 면사무소에서 운
영했다.

'현장민원실'은 군청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
민들이 군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근 면사무
소에서 다양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을 찾아가는 적극 행정이다.

하반기 현장민원실은 농번기를 피해 11월에 운
영했다.

교통 소외 지역인 운문·각북면에 운영 횡수를
증가시키는 등 농업인과 민원취약계층을 배려하
는 청도군의 섬세한 행정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 민원인 북카페 설치

'민원인을 위한 북카페' 설치로 고품격 민원서비
스 환경을 조성한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방문객이 가장 많이 출입
하는 민원실의 기존 고객센터를 활용해 미니 북카
페를 운영한다.

독서를 강조하는 청도행복현장의 실천을 위해
설치한 북카페는 원형의 소파에서 책을 읽으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군민들이 독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늑한 힐링
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실 직원들이 와이인 색상의 통일된 민원응대
복을 입은 모습은 신선한 느낌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민원응대가 더욱 전문적으로 비춰
지며 심지어 민원복은 직원 선호도 조사를 거
쳐 선정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
히 높다. 조여은 기자

'8인조 칠곡할매래퍼 그룹, 랩 때리며 치매 막아요'

칠곡군, 랩 활용 치매예방 일감 주민 만족도 최고다

수니와 칠공주, 보람할매연극단 등 할머니 래퍼
로 유명한 칠곡군에서 전국 최초로 랩을 활용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왜관읍 섬김주간활링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
르신들이 전날 열린 발표회를 통해 두 달간 연습
한 랩 실력을 뽐냈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할머니 10명과 할아버지 3
명으로 구성된 평균 연령 88세의 13인조 혼성 래
퍼 그룹 '우리는 청춘이다'를 결성했다.

그룹의 리더 송석준(95) 어르신이 청년 못지않
은 우렁찬 목소리로 랩을 선창하자 다른 어르신들
도 따라 부르며 비트에 맞춰 춤을 췄다.

어르신들이 랩 삼매경에 빠져든 것은 8인조 칠
곡할매래퍼 그룹 수니와 칠공주로부터 비롯됐다.



성인문해교육을 통해 여든이 넘는 한글을 깨친
수니와 칠공주는 지난해 10월 센터를 방문해 어
르신들에게 랩을 선보였다.

어르신들은 수니와 칠공주가 부른 랩을 흥겹게
따라 부르며 우리도 "랩을 배우고 싶다"고 건의했
다.

센터는 반복되는 가사를 암기하고 간단한 손동
작으로 춤을 추는 랩이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
는 판단에 관련 전문의를 통해 조언을 구했고 '랩
이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소견이 나오자 래

퍼 그룹을 만들었다.

서문시장에서 의상과 모자 등 액세서리를 마련
하고, 랩에 소질 있는 직원인 선생님으로 나섰다.

어르신들이 랩에 좋은 반응을 보이자 센터는 올
해부터 정규 교육 과정에 랩을 채택해 센터를 이
용 중인 모든 어르신이 일주일에 두 차례 랩을 배
우게 됐다.

장복순 센터장은 "랩으로 몸과 마음이 젊어진
것 같으며 계속 랩을 하고 싶다는 어르신들의 건
의가 이어져 정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앞으로
어르신들이 쉽게 배우고 따라 할 수 있는 랩 곡을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대학 의과대학 신경과 이호원 교수는 "노래
가사를 외우고 가볍게 춤을 추면서 말을 하듯 노
래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젊은 세대
와 소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노년에 활력
을 불어넣을 수 있는 랩이 많은 어르신에게 보급되
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우 기자

포항시 행정 2029년까지 7631억

포항시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기획재정
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칠곡군은 일상감사·계약원가심사로 예산 31억
절감하는 행정을 펼쳤다. 괄목할만한 성과다.

포항시가 기재부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심의·의결됐다.

환경부가 시행하는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
업'은 하천 제방 정비와 퇴적구간 준설을 통해
홍수피해를 예방한다.

2029년까지 총 76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제
방 보강 49.8km, 퇴적도 1260만㎡를 준설한다.

시는 형산강이 2018년 이후 홍수예보가 매년 발
령되는 등 홍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극한 강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해 형산강 준설을 지속으로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재·재
해로부터 시민과 기업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창명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 희망특별시 - 푸르고 편리한 환경 희망특별시 - 내 삶이 즐거운 복지 희망특별시-로
더 큰 포항을 향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 산업다변화 3(이차전지·바이오·수소) + 1(철강고도화)
- 일자리 1,000개 창출, 10,000개 양질 일자리
- GRDP 2018년 18조 → 2030년 30조
- 관광 1,000만 관광객 유치

활동해 경제수도 도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축

- ✓ 그린웨이 3대 프로젝트 완성
- ✓ 도시재생 3대 재생사업 완료
- ✓ 생태하천 4대 하천복원

친화경 생태 도시

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

- ✓ 교육·육아 공공지원 및 인프라 확대
- ✓ 체육 집 앞 5분거리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 ✓ 재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 완성
- ✓ 문화예술 인프라·프로그램 확대

100세 행복도시

희망특별시 포항

poohang 포항시

영덕 울릉 청송 영양



장기기증 故 강미옥 감사패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난해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 고 강미옥 씨의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영덕에서 태어난 강 씨는 지난해 일하던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뇌사상태에 빠졌다. 유가족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해 여러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농한기 주민 정보화 교육

청송군은 주민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1월 8~2월 28일까지 영농일자리지원센터 1층(청송읍 금림로)에서 농한기 주민 정보화 교육을 한다.

프로그램 과정은 스마트폰 기초, 스마트폰 앱 활용, 유튜브 되기, 파워포인트, 블로그 활용 등 5개이다. 각 과정 정원은 20명이며, 1일 3시간씩 월·수·금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소외된 주민이 없이 모두가 정보화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회 영양공공겨울축제 개최

영양군은 5·21일까지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제1회 영양공공겨울축제'를 연다.

영양군과 영양군체육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기존 무료 스케이트장 운영행사에 눈썰매장, 회전눈썰매장, 빙어낚시, 빙어잡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해 진행한다.

천지가 놀란 천지원전 백지화 대법원행

영덕군, 천지원전 백지화 회수 당한 지원금 409억 돌려달라 대법원상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됐다.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폐지되면서 정부가 지역에 줬다가 다시 가져간 특별지원금 409억여원에 대한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됐다.

군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낸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 2심을 졌지만, 마지막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해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군은 "눈으로 나타나지 않는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무엇보다 원전 건설계획 때문에 10년 동안 지역 개발을 못해 마을 주민들이 겪는 정신·물질적 피해를 정부에 호소하는 차원으로 상고를 결정했다."

앞서 2021년 10월 영덕군은 산업부를 상대로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폐지돼 더 이상 발전소 주변 지역법의 '주변 지역'에 (영덕군이) 해당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이 폐지돼 더 이상 발전소 주변 지역법의 '주변 지역'에 (영덕군이) 해당하지 않게 됐다."

지자체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원금 목적에 반한다"라며 지난해 4월 소송을 기각했다.

군은 "지원금은 지자체에 일회성 혜택으로 지급되는 보상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을 띠고 있고, 건설계획이 폐지돼도 지급 요건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지난해 22일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집행되지 않은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 판결문에서 "원고인 영덕군이 사업비를 반환해야 하는 법적 불이익을 입게 됐고, 원전 예정 구역 지정 철회가 예정한 법적 불이익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덧붙였다.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

본계획을 만들고 원전 건설계획을 세우면서, 2011년 영덕군을 천지원전 건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가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부터 3차례에 걸쳐 영덕군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특별지원사업비 380억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지원한 돈은 이자를 포함해 409억원으로 불어난 상태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했다.

천지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했다. 산업부도 정부 정책에 따라 2021년 4월 원전 예정 구역 지정을 철회했다.

조여은 기자

남한권, 갑진년 새 울릉 만들자

2024 현장 시무식 개최 울릉도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전직원 및 하나된 주민 모두 승리



2024 청룡의 해를 맞아 승전하는 용의 기운처럼 전직원이 모두 하나가 돼 전진하는 역동적인 울릉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울릉·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전직원 및 주민 모두 하나돼 이루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올 해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직원 개개인이 울릉도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민원응대 및 직무에 임하고, 새희망! 새울릉!"의 구호처럼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찬 새로운 울릉을 만들자"고 밝혔다.

정윤환 기자

울릉군의 갑진년 청룡의 해를 출발하는 시무식 각오비장하다.

시무식은 지난 2일 동동항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열렸다. 이날 필수민원응대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참여했다.

국민보건체조를 시작으로, 갑진년 새해를 맞아 용띠인 직원 무명을 필두로 전직원이 청룡결의의 선서를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새해 인사와 직원들과 덕담으로 마무리했다.

남 군수는 작년 한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

사람과 공간... 품격높은 영덕 문화 건설

2023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 경북도 문화접근성우수사례 뽑혀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추진한 '2023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이 경북도 문화접근성 확대 정책 추진 우수사례로 뽑혔다.

경북도는 지난해 실적과 정성지표를 통해 선정했다. '문화 기반 취약지역, 경북 북부권·인구소멸 시군 문화 향유 기회 확대'부분 중 동해안권에 기재됐다.

광역시지체 중 최대 면적을 가진 경북도는 이동권이 제한된 농촌지역 노인과 저소득층 아동들의 문화예술 체험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했다.

경북 문화예술 관람을 전국 격차 축소와 인구소멸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문화접근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연말, 문화 접근성 확대 추진 정책 우수 사례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재단의 '2023지역문화활

력촉진지원사업'중 하나다.

영해면에서 열린 △만세시장 스트리트아프스타, 그리고 영덕 배경으로 군민이 배우로 참여한 웹드라마 △우리마을식당을 지역 마을에서 상영한 프로그램이었다.

만세시장 스트리트아프스타는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상인과 청년들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 '3.1문화살롱'을 중심으로 귀촌 예술가와 관계 청년들이 전시, 공연, 아트투어 축제다.

축제 기간 중 지역 청년들이 자체 기획한 밤도깨비 파티와 주민 참여형 프리마켓을 열어 전통시장을 활용한 독특한 문화 활력 축제로 인정받았다.

웹드라마 우리마을식당은 문화예술 향유가 어려운 마을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영화상영회로 경북 시군의 특색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단은 앞으로도 문화예술과 지역 주민의 간극을 좁히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간이 공생 공존하는 영덕을 만들어 지역의 문화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조여은 기자



20·21대 영양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갑진년 새해 새출발하는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갑진년 새해 제20·21대 영양여성단체협의회장이·취임식이 지난 5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취임식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 및 관내 기관단체장과 여성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식전공연, 감사패 및 공로패 전달, 이취임사, 신임임원 소개, 시무패 절단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이옥화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인재육성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에 동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회장직을 마무리한

최계숙 회장은 "지난 6년간 협조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발전에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이옥화 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영양군지회 사무국장,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 여성회장, 장계향선양회 감사,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회장의 활동을 이어받아 여성이 주체가 돼 국민신장 향상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더욱 발전하는 여성단체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새해 새출발을 하는 제21대 이옥화 여성단체협의회장에게 축하를 전하고, 휴수동행(携手同行)하며 함께 나아가는 영양군 여성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상북도

| 단지명 | 소재지 | 주요 입주업종 |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 분양문의 |
|--------------|--------------------------|--|--------------------|-------------------------|
|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 3,604천㎡ / 203천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
|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항리 일원 |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교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 1,295천㎡ / 257천원/㎡ |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
| 상주 일반산업단지 | 상주시 현신동 일원 |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 238천㎡ / 112천원/㎡ | 상주시청 054-537-7411 |
| 경산4 일반산업단지 | 경산시 진량읍 신세리, 다문리 일원 |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 1,066천㎡ / 293천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
| 고이제2 농공단지 | 구미시 고이읍 오로리 일원 |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 165천㎡ / 284천원/㎡ | 구미시청 054-480-6137 |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4·환경·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펌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자가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중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최기문 영천시장 여의주 문 청룡타고 성공신화 이룬다

갑진년 날아든 새해 '첫' 낭보 대구 1호선 연장 '예타' 통과 2030년 개통목표 2341억 투입 영천의 새 추진동력으로 삼아 지방소멸 위기극복 대구·경북 동반성장 미래 연다 각오다져

최기문 영천시장이 여의주를 입에 문 청룡을 타고 새희망 영천의 장미빛 청사진을 그린다.

올해 최대 영천에 날아온 낭보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다.

최 시장은 "연초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 기쁘다. 예타 조사 최종 통과를 시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은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천의 새 추진동력으로 삼아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대구·경북 동반 성장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사업의 예타 통과를 의결했다.

대구 1호선 연장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 금호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연장되는 철도 길이는 5.7km로 총사업비는 2341억 원이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은 영천의 미래를 바꿀 획기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영천은 대구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 아니다.

68년 만에 영천 제2탄약창 1지역 24만평,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격 해제되면서 남부동 '투자선도지구' 추진에 비상의 날개를 한껏 퍼득낸다.

▣ '대구호선 연장' 예타 통과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금호 연장사업은 그야말로 새해 최고의 선물이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은 영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영천시는 하양역에서 금호역까지 약 5.66km를 잇는 광역교통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이날 회의를 열고 시정 전략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올해 기본 및 실시계획용역에 착수해 내년까지 완료하고 2026년 착공에 들어간다. 2029년에 준공과 시운전을 거쳐 2030년 개통한다.

총사업비는 2341억 원이다.

정거장 2개와 철로 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이 확충된다.

시는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경마공원, 금호-대창 하이패스IC, 하이테크파크지구, 금호-대창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산-영천을 잇는 20분의 공동생활권

확장으로 근로자 유입이 쉬워져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문화·교육·의료 분야에 활용도가 다양해지고 정주여건이 개선돼 도시 품격이 높아진다.

최기문 시장은 2020년 5월 21일, 전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도시철도 유치를 긴급현안으로 건 의했다.

이듬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2년 10월 지방 광역철도 중 가장 먼저 예타조사 목록에 이름을 올렸고, 12월에 최종 대상에 선정됐다.

이 과정에 최 시장은 전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실무 관계자 등을 수차례 만나 시민들의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시는 이번 철도사업과 연계해 대중교통체계를 개편, 시정 최대 현안인 대구 군부대 유치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영천은 경북의 중심도시다.

경마공원 조성, 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대구와의 접근성이 불편해 인구 유입과 투자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영천은 대구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 인구 유입과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천의 도시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영천이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영천시, 시정 전략점검 회의

최기문 영천시장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후, '예타 통과'에 따른 시정 전략점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최기문 시장을 비롯해 간부 공직자, 관련 부서장 등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도시철도 예타 통과와 경과보고와 함께 주변 SOC사업, 연계대응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하고 전략방안을 공유했다.

시는 영천경마공원과 인근 산업단지 조성, 각종 광역교통망 확장 공사 등 도시철도 주변 SOC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점검, 개별 사업들 간 연계 시너지 방안을 꾀했다.

대구-경산-영천 간 획기적으로 늘어날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2026년 영천경마공원의 성공적 개장을 추진한다.

경부선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 공사, 국도 4호선 금호-하양 구간 확장공사, 금호-대창 일반산업단지 등 추진 중인 역점사업들을 연계, 광역 교통망 확충과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와 9km, 금호 일반산업단지와는 불과 3km 거리에 있어 알짜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근로자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해 유동인구와 정주인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

대된다.

신규 주거단지와 주변 상권 등 역세권 조성을 위한 용역 착수에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구와 20분대 동일 생활권이 형성됨에 따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도시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등 연계사업을 발굴한다.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도시철도 개통으로 시정 최대 현안인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활동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군인과 군인 가족의 교통 편리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유치 활동에 나선다.

▣ 68년 만에 영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는 68년 만에 영천 제2탄약창 1지역 중 일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6·25전쟁 이후 1956년 영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 제2탄약창은 완산동, 남부동, 북안면 일대에 걸쳐 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곳은 금노동, 도동, 작산동, 완산동 일대 79만 9932㎡(24.2만 평)에 달한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로 영천시 균형 발전에 큰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수십 년간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큰 불편을 덜게 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정상이행 완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후적지에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투자선도지구는 59만 1000㎡(17.9만 평) 터에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영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사업을 유치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4 신년화두 비룡승운(飛龍乘雲)

최기문 영천시장이 내건 신년화두는 비룡승운(飛龍乘雲)이다.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 듯, 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다.

최 시장은 대구 군부대 이전 등 현안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영천시의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최 시장은 시무식 이후 첫 일정으로 제2탄약창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현장과 금호대창 하이패스IC 설치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시정 현안사업 행거기에 나섰다.

2024년에도 잘 사는 영천, 살맛 나는 영천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

최 시장은 올해 알짜기업 유치와 기업혁신 지원, 각 분야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영천 도약의 새로운 원년의 해를 만든다.

최 시장이 내건 영천의 핵심 목표는 "민생안



영천시 시장 전략점검 회의에 나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금호) 연장사업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현장방문



최기문 영천시장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설치공사 현장방문

정·친기업 산업 생태계 구축,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력 기반 조성·보현산권역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도약·부지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지방소멸 위기 대응·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복지 확대" 신년방문 시정구현 등을 제시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영천시정을 만든다.

시민과의 소통 기회를 수시로 마련, 현장에서 답을 찾고, 늘 경청하고 소통하며 지역사회 화합을 이루겠다는 각오는 변함없다.

무엇보다 청렴을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에 두고 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확대, 도문문화 활성화 등 행정업무 혁신과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다. 최은하 기자

영천 9가지 즐거움 더행복

9가지의 즐거움 더행복

영천시

은해사

임고서원

보현산천문대

치산관광지

보현산맹장와이어

운주산승마자연양림

영천남벚꽃백리길

영천한마을

도화원길

구미 김천 문경 상주 예천



상주 서문교회 사랑나눔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상주서문교회는 희망2024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상주시청에 기탁했다.

상주서문교회는 1964년 9월 15일 설립, 2009년부터 매년 성금을 지속적으로 기탁하고 있다. 배혜광 목사는 "꾸준히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취약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탁을 하였고, 성금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해당 성금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천 황금시장 상인회 올해도 이웃사랑 성금

한파에도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기부 행렬이 연일 이어지고 있어 지역 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더하고 있다.

김천 황금시장 상인회는 양금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양금동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28만원을 냈다.

황금시장 상인회는 어려운 상황에 도매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한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인 이웃들에게 생계비로 지원된다.

진태술 양금동장은 "상인회의 정성과 사리가 저소득층에 전해져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구미 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구미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실시일반 정성을 모아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고령군(주)나인컴퍼니 대표 김중현(현)에서 직접 생산한 전지매트 200장(3200만 원 상당)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었다.

재구미총청향우회도 회비로 마련한 1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안천희 사회복지국장은 "기탁해 준 성금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으며, 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고 싶다는 데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예천군, 혁신농업 기술보급 스마트농업 미래 연다

60개 사업 102억여 원 투입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 특목

예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60개 사업에 102억여 원을 투입, 지역 농업 발전과 미래농업 선도에 힘쓴다. 정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스마트 농업시대를 선도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사업은 △밭쌀용 고품질 신종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신기술 적용 스마트팜 풋고추 수확재배단지 조성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사업 △한우유전자원 관리실 △제품개발실 및 디자인개발실(90㎡) 구축 등이다. 밭쌀용 고품질 신종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 사업은 2025년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으로 선정

정된 미소진미 종자를 미리 확보해 지역 특화 명품화 브랜드 쌀을 육성한다.

지난해 2억 원의 예산으로 미소진미 및 안팎배 재배단지 211ha를 조성했다.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미소진미 재배기술 교육과 종자보급을 위한 재종포 및 재배단지 130ha를 조성했다. 농가보급 수직형 스마트농장 조성 시범은 당초보다 2억 증가한 사업비 7억으로 2024년 2월 말 준공한다.

3월부터 딸기 등의 시험 재배를 시작, 추후 신규농업인의 스마트팜 현장 실습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사업은 10억을 투입하는 신기술 적용 스마트팜 풋고추 수확 재배 단지 조성이다. 개포면 일대 약 0.4ha 면적에 스마트팜 현대화

시설 기반으로 품질 좋은 개포 풋고추의 명성을 유지하고 수출 작목으로 확대 육성한다.

과실 안정생산 기술 및 신종종을 보급, 12개 사업, 8억 3000만 원을 들여 사과, 복숭아, 포도 등에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과수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포도 신종, 대체작물인 체리, 살구 등 작목을 육성·확대하고 화상병 방제를 위한 약제 보급, 과실 전수예찰을 위한 예찰단을 운영해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한우유전자원관리실은 한우 개량이 진행, 근친교배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액 범위가 제한,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정액을 수거해 필요한 농가에 1대1 교환한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는 식품유형 6종류(곡류가공품 등)의 HACCP 인증을 완료했다.

제품개발실 및 디자인개발실(90㎡)을 구축, 15종의 소규모 가공장비를 구비해 가공장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이 소량의 원료로 다양한 시제품을 만들어 참여를 돕는다.

올해에는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한 가공상품 마케팅 교육과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을 지원, 가공센터에서 제조된 공동브랜드 '맛플라:에' 가공품 판로 확대에도 힘쓴다.

농기계현대사업소(예천남부 2곳)는 임대장비 822대를 보유, 지난해 8329건(전년 대비 110%)을 임대, 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 제작 및 각종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해 큰 호응을 얻었다.

10억원의 예산으로 풍양면 낙상리 일대에 설치한 남부농기계 셀프세척장(2,959㎡)이 올해 운영을 시작,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제도도 2024년까지 유지한다. 안병욱 기자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총력

청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완료...

상주시의 청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이 승인 완료됐다.

강영석 시장은 "정부 건축재정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이 확정, 상주시 재정 여건은 물론, 입주기업들의 오·폐수처리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7일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증설을 위한 기본계획(변경)을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지난달 27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청리면 마곡리 1191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현재 처리용량이 250㎡/일이지만, 향후에는 약 6000㎡/일의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을 단계적으로 증설한다.

청리일반산업단지에는 SK머티리얼즈 그룹포틴이 입주, 제1공장이 준공되어 이차전지 실리온 음극재 양산을 위한 인증과정을 하고 있다.

향후 제품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음극재 공장

추가 증설과 SK스페셜티의 실란공장이 운영되면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2년부터 청리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 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일일 약 6000㎡의 폐수처리가 가능토록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총 3단계로 구분돼 있다.

이 중 1단계 공사(250㎡/일)는 2017년 준공됐다. 2단계 250㎡/일 증설공사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3-1단계 사업은 3500㎡/일, 3-2단계 사업은 1000㎡/일, 3-3단계 사업은 500㎡/일, 3-4단계 사업은 500㎡/일의 폐수처리용량을 증설한다.

3-1단계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 335억원(국비 235억원, 시비 100억원)이 편성,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장들과 각종 지원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산단 내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전처리 과정과 생물학적 고도처리 과정을 거쳐 맑은 물로 바뀌어 마곡천으로 흘러보낸다. 이경호 기자

김천시 “농업이 생명산업”

새해 첫 농지위원회 심의회 농업경영능력 종합적 검토

새해 김천시가 바쁘게 움직인다.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협의회, 첫 정기총회도 열렸다.

■올해 첫 농지위원회

김천시 개령면은 행정복지센터 면장실에서 올해 첫 번째 농지위원회를 열었다.

농지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 농지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등 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김천시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는 관외 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할 때, 1필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 농업 법인, 외국인 등이 농지를 취득할 때 등에 대해 경영계획서, 영농의지 등을 고려,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위원회는 상정된 농지취득 심사 안건에 대해 영농여건, 농지의 이용 실태, 취득 농지의 상태와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

이 있는 심의를 했다. 임동환 개령면장은 "올해 첫 번째 개최되는 개령면 농지위원회는 감회가 새롭다. 농지위원회는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사전 방지,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만큼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첫 정기총회

평화남산동 새마을협의회도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회원 31명이 참여, 2024 첫 정기총회를 가졌다.

회의는 2024년 한 해 새마을협의회 활동을 이어갈 임원진단을 선출, 향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애쓴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상식도 가졌다.

신광식 협의회장과 새로 취임한 박미옥 부녀회장은 올 한 해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며 회원들과 평화남산동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환 평화남산동장은 "새로 평화남산동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올 한 해 회장과 회원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며 "살기 좋은 평화남산동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 이경호 기자

구미보건소, 취약계층의 알레르기 질환 지원대상자 확대

구미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의 의료비와 보습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토피피부염, 천식이 있는 구미 관내 만 18세 이하 환아의 의료비와 보습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를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구에서 기존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변경했다. 1·2종의 의료수급권자, 세대년 이상 가구, 다문

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미보건소 누리집을 참고,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취약계층의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054-480-40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은진 기자



문경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 개최

문경여성단체협의회는 2024 신년교례회가 지난 5일 문경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신현국 문경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황재용 시의회의장, 박영서 경북도의회수석부의장, 시도의원, 관내 여성계 인사, 18개 여성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문경여성단체협의회는 총 18개 단체로 7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 지금까지 지역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사진=문경시 제공)

문경여성단체협의회는 2024 신년교례회가 지난 5일 문경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신현국 문경시장, 임이자 국회의원, 황재용 시의회의장, 박영서 경북도의회수석부의장, 시도의원, 관내 여성계 인사, 18개 여성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문경여성단체협의회는 총 18개 단체로 7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 지금까지 지역 여성의 권익 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 오고 있다. (사진=문경시 제공)

문경시, 지역경제대상 3개 부문 수상 영예

신현국, 힘찬 도약 문경 미래 비전실현 상권 '활성화' 한뫼

문경시가 한국지역경제학회와 한국지역경제연구원 등이 평가한 '2023 대한민국 지역경제대상'에서 시 종합부문 '최우수상', 투자유치 부문 '최우수상', 농업경제 부문에서 '탑상'을 수상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지난해 문경시의 국내·외 기업 등의 투자유치를 핵심과제로 삼고, 도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도 또 다른 기적을 향한 힘찬 도약으로 문경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는 17개 시·도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연도별로 공표된 지역경제통계 등을 근거로 정량지표 중심으로 평가했다.

투자유치 부문의 주요성과로는 백종원 대표의 (주)더본코리아의 외식산업개발원, 글로벌 워터리조트 기업인 테르메그룹의 워터파크·호텔 등과 강릉 커피공장으로 유명한 테라로사 등의 국내·외적으로 굴적한 기업들을 유치했다.

산업단지 등에는 28건의 MOU를 통해 1441억원의 투자유치와 407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공공기관인 경북도소방장비기술원을 유치, 도민의 안전을 위한 국내 최고의 전문교육으로의 토대를 마련했다.

농업경제 부문에는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유치, 도민의 농업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생 유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한뫼했다.

사과·오미자·약돌한우축제로 75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약 30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경제파급 효과는 220억원에 달한다. 김동수 기자

예천장터, 사이소와 통합 새단장

예천장터 사이소가 새단장됐다.

온라인 쇼핑몰 예천장터가 경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와 통합플랫폼을 구축, 누리집 점검을 거쳐 단장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소비자는 하나의 통합아이디로 예천장터와 사이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장터의 사이소 통합연계망으로 농특산물 판로의 다각화와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 설 명절에도 예천장터를 통한 우리 예천 농·특산물 구매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입점 농가는 두 쇼핑몰의 주문과 상품관리를 한번에 할 수 있어 판로는 넓어지고 관리는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안병욱 기자

예천장터 리뉴얼 오픈날(1월5일) 기념, '행운의 105인이 되어보세요!' 행사를 가졌다.

8일~2월5일까지 설 특판 기간 2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5만원 이상 구매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설 명절 특별판매도 한다. 설 명절 특별판매도 한다.

이 기간 전화유예에 5% 할인쿠폰을 지급, 품목별로 5~30% 할인판매를 한다.

사전구매기간(1월8~21일) 고객들에게는 1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예천장터 신규고객에게 4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대량 구매 고객과 기업 고객을 위한 개별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군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적극적인 특별 판매전을 연다. 안병욱 기자

안동 영주 봉화 의성

권기창 안동 시장은 8일 오후 옹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제7기 안동시 SNS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의성군, 자동차세 연납

의성군은 1월 한달간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달 납부시 실질적으로 4.6%의 할인이 적용된다(할인율매년 감소 추세).

자동차세의 연납은 1,369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2%의 공제율로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의성군 자동차세 연납세액은 전체 자동차세의 28%를 차지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연세액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연납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세목에 비해 세액이 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라며 "전화한 통로로 쉽게 간편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봉화 가축 전염병 공수의사 4명 위촉

봉화군은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청정화 유지를 위해 수의사 4명을 2024년 봉화군 공수의사로 위촉했다.

공수의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하며, 동물의 진료, 동물 전염병의 예방 및 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위촉된 공수의는 하중성 내성동물병원장, 이재석 영광동물병원장, 하중엽 하수의과병원장, 김서필동물병원장으로 올 한해 담당 공수의 지역의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동물의 진료, 구제역과 렴피스킨 예방접종, 브루셀라병 및 결핵 혈청검사, 산란계 밀집단지 조류인플루엔자(AI) 간이검사 및 가축전염병의 예방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가축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수의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의성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 방문

전문인력 양성과 상호 협력모색 의성 세포배양 U-시티 역량 집중

의성군은 지난 4일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교사 18명이 의성군의 세포배양산업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는 1910년 대구공립농림학교로 개설된 이래 2017년 대구농업마이스터고로 개교한 113년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학교로 현재 대구 수성구 노변동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농업마이스터고의 의성군 방문은 2024년부터 교내 그린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면서 바이오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향후 의성군에서 필요한 세포배양산업 전문인력 양성과도 상호 협력할 부분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의성군은 2023년부터 경북도와 지역대학, 관내 고등학교, 세포배양산업 관련 의성군 입주기업과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산업기반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의성군의 특화산업인 세포배양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의성 세포배양 U-시티'라는 사업명으로 기존 특화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사들과 함께 군을 방문한 서영석 교장은 "교내 그린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면서 2024년 첫 방문 기관을 의성군으로 정한 이유는 바이오산업의 원천소재 사업의 선도 기지가 의성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대구농업마이스터고와 의성군이 상호 협력할 부분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바이오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관내를 넘어 여러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 군은 이러한 인재들이 의성군에서 자긍심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라며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의 새해 첫 방문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박재성 기자**



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도에는 '의성 세포배양 U-시티'라는 사업명으로 기존 특화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사들과 함께 군을 방문한 서영석 교장은 "교내 그린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하면서 2024년 첫 방문 기관을 의성군으로 정한 이유는 바이오산업의 원천소재 사업의 선도 기지가 의성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향후 대구농업마이스터고와 의성군이 상호 협력할 부분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바이오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관내를 넘어 여러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 군은 이러한 인재들이 의성군에서 자긍심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갈 것이다"라며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의 새해 첫 방문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박재성 기자**

영주시, 계약원가심사로 30억원 예산 절감

총 135건 874억원 심사
30억절감 절감율 3.42%

영주시가 지난해 계약원가심사로 29억 8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7월 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135건 874억 원 규모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공종 및 공법 개선, 과다계상된 물량·요율 시정, 노임·품셈 적용 오류 등을 바로잡았다.

계약원가심사는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

영주시 계약원가심사 기준금액은 종합 및 전문 건설 공사 2억 원, 기타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 5000만 원, 용역 5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이상이다.

시는 계약심사를 통한 원가계산에 대해 합리적인 원가 심사, 부실시공 예방에 중점을 두고 단순한 금액 심사가 아닌 안전 공법 추가로 공사안전성을 강화해 심사해 왔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애고, 현장 안전성 강화 등 지역 재정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는 올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지난해 대비 56억 원 증가한 559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기업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다.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 건설, 운수 등 11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여성·장애인기업 등 우대업체는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1년 가처 약정사항으로 대출금리의 4%까지 지원된다.

운전자금 융자 신청은 추천 가능액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접수 또는 영주시청 기업지원실(054-639-6123)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전상기 기자**

영주시는 지난해 4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되던 각종 수수료를 지난 7월부터 전면 감면해 총 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기존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에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관 구경별로 4만 3천 원에서 4만 8천 원까지 수수료(설계·준공검사·자재검사)를 부과했다.

시는 시민들의 상수도 공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전면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200여 가구가 총 9백 만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용 부담을 덜었다.

올해 약 700여 가구 총 3천만 원 정도의 급수공사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준길 기자**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 첫 경매... 지난해 매출액 2954억

초매식 열고 풍년·무사안녕 기원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난 4일 첫 경매를 시작했다.

이날 경매는 출하주, 중도매인, 유통관계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경매에 앞서 풍년과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초매식 행사도 열렸다.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은 경북 북부지역 농산물 유통 거점이다. 전국 최초로 원물형태 사과를 자체 선별 후 경매에 부치는 방식을 도입해 농촌 고령화 및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농가수취가격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권태형 안동농협 조합장은 "지난해에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을 믿고 전속 출하해 준 농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사과유통 중심지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지난해는 전국 지역농협 공판장 최초로 매출액 2500억 원 달성을 넘어 역대 최대인 2954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

권태형 안동농협 조합장은 "지난해에 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을 믿고 전속 출하해 준 농민들에게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사과유통 중심지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이장연합회와 정신건강 업무협약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개입 체계 마련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 4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봉화군이장연합회와 정신건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마을주민에게 정신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견 시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봉화군의 면적(1202.3km²)은 서울 면적(605.21km²)의 2배이며 산지가 많아 상담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지역 주민의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이장들을 통해 취약대상자와 고위험군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기열 이장연합회장은 "상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성일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군민을 적극적 발굴과 개입으로 1등 도시가 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안동시는 지난해 4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되던 각종 수수료를 지난 7월부터 전면 감면해 총 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기존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에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관 구경별로 4만 3천 원에서 4만 8천 원까지 수수료(설계·준공검사·자재검사)를 부과했다.

시는 시민들의 상수도 공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전면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200여 가구가 총 9백 만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용 부담을 덜었다.

올해 약 700여 가구 총 3천만 원 정도의 급수공사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준길 기자**

안동시, 농촌진흥시범사업 대상자 모집

83개소 사업 추진, 31일까지 접수

안동시는 올해 시행하는 농촌진흥시범사업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에서 접수한다.

7일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농촌시범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농업인 개인 또는 마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 1인이 2종 이상 시범사업을 신청하

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보급하려는 신기술 투입 및 실천이 곤란한 경우,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농촌진흥시범사업은 축산 분야 4개소, 청년농업인지원 3개소, 식량작물 분야 7개소, 원예작물 분야 17개소, 과수 분야 16개소, 약용작물 분야 12개소, 그 외 사업 24개소 등 총 83개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거나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준길 기자**

안동시, 주요 관광지 요금 할인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등 혜택

안동시는 올해부터 제복군무자와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안동 주요 관광지 이용료를 할인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연말 '안동시 제복군무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및 '경북도청 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안동시 이용료 할인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복군무자 범위를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웃인 예천군민도 할인 대상에 포함

했다.

제복군무자는 유교랜드, 주토피움,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포함한 10개소에서, 예천군민은 학가산온천, 도산서원, 하회마을을 포함한 5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복군무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하고, 같은 생활권에 있는 예천군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안동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준길 기자**

영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지원

영주시는 올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지난해 대비 56억 원 증가한 559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지역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 기업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다.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 건설, 운수 등 11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3억 원, 여성·장애인기업 등 우대업체는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1년 가처 약정사항으로 대출금리의 4%까지 지원된다.

운전자금 융자 신청은 추천 가능액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해 접수 또는 영주시청 기업지원실(054-639-6123)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전상기 기자**

안동시, 신규 급수공사 수수료 감면

안동시는 지난해 4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으로 급수공사 신청 시 부과되던 각종 수수료를 지난 7월부터 전면 감면해 총 2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기존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신청 시에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관 구경별로 4만 3천 원에서 4만 8천 원까지 수수료(설계·준공검사·자재검사)를 부과했다.

시는 시민들의 상수도 공사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전면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200여 가구가 총 9백 만 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아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용 부담을 덜었다.

올해 약 700여 가구 총 3천만 원 정도의 급수공사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준길 기자**

Opinion

칼럼

세계 문자 한글의 장래 <1>

신 부 용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운영이사



우리는 현재 세계의 경제와 질서를 이끌어 가는 몇 안 되는 열강의 대열에 서 있으며 우리의 문화는 과족지세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2030 엑스포' 부산 유치에 성공하면 우리의 문은 더 활짝 열릴 것입니다.

국가 존망의 위기에 전전긍긍하며 황급히 만든 한글을 다음 세대에까지 가지고 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영어와 중국어 발음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하는 현행 한글로는 우리 청년들이 국제무대에서 적지 않은 제약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엔 선사연 칼럼을 총 12회 연재 하면서 한글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따가운 질정과 격려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연재 순서) 1. 문자의 기능과 훈민정음: 문자는 특정 언어를 표기하는 도형적 기술 2.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 인간이 말소리를 만들어 내는 원리를 도형화 3. 한글의 정체: 주시경이 언문을 정리해 만든 한민족의 생명줄 4. 한글의 폐쇄성: 대한민국의 성장에 맞춰 벗어나야 할 족쇄 5. 외래어 표기법과 국어 표기법: 짜아짜아족의 가르침 6. 훈민정음과 한글, 그리고 컴퓨터 7. 한글20을 제안한다: 기본 자모 각 10자 8. 한글20의 기적: 말소리의 수치화 9. 중국어는 한글의 세계화를 위한 명석이자 고속도로 10. 말소리 연구가: 언어 장애의 극복 수단이자 한글 세계화의 도구 11. 2030 엑스포에 제안한다 12. 맺는말

글자라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글자는 말을 적는 기술'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은 우리말을, 알파벳은 영어 등 라틴계 언어를, 한자는 중국어를 각각 적

는다는 것을 다 아시겠지요. 그렇다면 이 글자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학자들은 인류가 200만 년 전부터 일종의 말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부족해 그림을 그려 보충했을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게 된 그림은 좀 더 간단히 그리게 됐고 이것이 그림문자로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림문자는 자연스럽게 그 그림이 나타내는 형상의 이름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사슴 그림을 보고 '사슴', 호랑이 그림을 보고 '호랑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림문자에 이름을 붙여 부르다 보니 글자마다 발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이름들이 글자의 발음으로 쓰이게 되면 서 그림문자가 소리를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발음을 갖는 그림문자, 즉 상형문자가 된 것입니다.

수메르 지방에서는 이미 B.C. 3,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5,500년 전에 상형문자의 일종인 설형문자(뿔기문자)를 썼다는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상형문자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왕의 비서에 이름을 새기고 사연을 적기도 했습니다.

찬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끌었고,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문학작품으로 알려진 길가메시 신화도 4,000여 년 전 점토판에 뿔기문자로 새긴 것이었습니다.

상형문자는 사물의 이름을 대부분 첫 음절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호'라고 첫 음절만 쓰는 식이지요. 초기의 상형문자는 약 1,000개의 음절문자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같은 음절의 문자들은 하나만 남고 없어져 수백 자료 줄어들고, 다음에는

같은 자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모두 하나로 통합됩니다.

예컨대 가, 거, 고, 구 등 '기'로 시작되는 음절을 모두 '가'로 통일하고 읽을 때에는 늘 쓰는 대로 발음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란 단어는 '가'로 쓰고 '고'라고 읽습니다.

우습게 보이겠지만 바로 아랍어와 이스라엘어가 이런 '자음문자(Abjad, अबجد)'에 속합니다. 다만 특수 부호 몇 개로 일부 모음을 표시해 줍니다.

이들 언어의 문자 여지거리에 찍혀 있는 꼬부라진 점들이 모음을 표시하는 부호입니다.

약 3,000년 전 배를 타고 다니며 무역으로 살던 페니키아 상인들은 여러 지방을 상대하기 위해 22자의 아브자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페니키아 알파벳이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거쳐 현대의 라틴 알파벳으로 발전했습니다. 인도 지방에서는 아브자드에 필요한 모든 모음을 부호로 처리해 아부기다(Abugida, 모음부 자음문자)로 발전시켰습니다.

산스크리트를 적는 데바나가리 문자도 아부기다이며 세종대왕도 데바나가리에 통달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음운 체계 '아설순치후'는 순서만 조금 바꾸면 데바나가리 음운 체계와 일치합니다.

지금 세계에는 아브자드, 아부기다, 라틴 알파벳을 쓰는 사람이 각각 9억, 12억, 49억 명이며 이밖에 한자를 쓰는 사람이 중국과 일본만 쳐도 15억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문자는 고대로부터 그렇게 많이 발전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녹음기는 어떤 소리든 다 기록합니다.

인간의 말은 모두 소리이니 녹음기처럼 어떤 소리나 다 표기하는 문자 체계 하나만 있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에는 무려 300여 개에 달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자로는 통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대왕은 어느 나라 말이나 소리로 적어 쉽게 통하도록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홍준표 "이재명 특혜시비 유지하기 그지없어"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홍기 피습 이후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전원하는 과정을 놓고 특혜 등 논란이 일자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5일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가 참안타깝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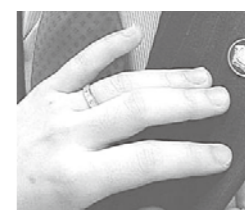
홍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 전 서열상 총리급에 해당하는 일급변제 서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홍기 피습을 당했다면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헬기로 서울 이송도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걸 두고 진영논리로 특혜 시비를 하는 것 자체가 유지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의료를 멸시했다는 논리로 가당찮다"며 "서울 수서역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오늘도 삼성병원원에게 SRT 타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서울버스 타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그건 왜 비판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식 수준에 맞게 지방의료의 수준을 높일 생 각부터 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도 시급하지만 지방의료 수준을 국민들이 신뢰하게끔 수도권 못지않게 높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며 "사람 목숨도 정쟁거리가 되는 시대 참안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배지 사수' 나선 대구 현역 의원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고강도 인적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지역구로 둔 여당 국회의원들의 의정 보고회가 연이어 열린다.

대구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 동구갑을 지역구로 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7)이 4일 오후 동구 MH웨딩에서 신년 의정 토론회를 열었다.

한때 '친(親)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계'로 꼽힌 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선 의원으로, 자신의 국회 의정 활동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그의 지역구인 동구갑에는 배기철 전 동구청장(66), 임재화 전 대구고법 판사(52),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52), 손종익 상생정책연구원장(64(무순)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대구 달서구병을 지역구로 둔 김용국 국민의힘 의원(66)은 6일 오후 달서구청에서 '종합의정보고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 지역구인 달서구병에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61), 최영오 진보당 대구시당 달서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41(무순)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방을 다지고 있다.

대구 북구를 초선인 김승수 의원(59)은 오는 9일 오전 북구 어울아트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주민들에게 알린다.

북구에는 현재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60), 신유성 전 전국농협노조 수석부위원장(51), 정한나 자유통일당 당원(55(무순)이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홍시장은 지난해 연말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한비대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초선부터 시작해 중진까지 물갈이할테니까 모두 각오하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건강 상식

겨울 졸깃한 꼬막... 날로 먹어도 될까?

겨울이 제철인 꼬막류는 고단백·저지방·저칼로리의 알칼리성 식품이다.

비타민A와 비타민B군이 풍부하고, 필수아미노산과 칼슘도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에 좋다. 또 철분이 많아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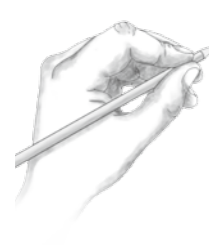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꼬막류는 크게 참꼬막, 새꼬막, 피조개(피꼬막) 3종으로 모두 돌조개과에 속하는 조개의 일종이다.

꼬막류는 껍질에 난 주름골의 모양새가 가와지붕을 닮았다고 해서 '와농자(瓦農子)'라고도 하며, 고홍-벌교-순천-여수로 이어지는 전라남도 여차만 연안 지역이 최대 생산지다. 새꼬막은 시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꼬막으로 졸깃한 식감이 일품이며 양념을 더해 반찬으로 먹기 좋다.

양식기업의 확대로 생산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조개(피꼬막)는 조갯살이

붉은데 이는 피가 아니라 내장액의 헤모글로빈 때문이며, 주름골이 39-44개가 가장 많고 크기가 가장 크다. 꼬막류를 고를 때는 껍질이 윤기가 있고 주름골이 선명하며, 만졌을 때 입을 다물고 깨지지 않은 것은 것을 고르는 것이 좋다.

피조개는 삶으면 특유의 맛과 향이 사라져 회나 초밥 등 날 것으로 먹는 경우가 있으나 겨울철 노로바이러스의 위험 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DAEGU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2024 1월13일~14일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개최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대회

‘겨울스포츠의 꽃’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대회가 2024년 1월13일~14일 이틀간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묘기에 가까운 경기를 펼치면서 짜릿한 스릴과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 2024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1월 13일 ~ 1월 14일)
 - ▶ 2024 청송전국아이스클라이밍선수권대회 (1월 6일)
 - ▶ 2024 청송전국아이스클라이밍페스티벌 (1월 7일)
- _ 장 소 :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경기장



주최 : 국제산악연맹, 아이스클라이밍위원회, 대한산악연맹

주관 : 청송군, 경상북도산악연맹